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조주의 관문은 ‘돌다리’

조주 스님이 문하대중에게 가르쳐 말했다.
“조금이라도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분별심이 있으면 마음을 잃고 만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가?
후에 이 일을 어떤 학승이 낙포(洛浦)에게 이야기했는데 낙포는 이(齒)를 따다듯 부딪혔다. 그것을 또 운거(雲居)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운거가 말하길
“낙포 스님이 하필 그렇게까지 할 필요야...”
학승이 이것을 조주 스님에게 이야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남쪽에 크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
학승 말했다.
“화상께서 거론해 주십시오.”
주 스님이 은밀히 거론하자, 학승은 곧 옆에 있는 승려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스님은 공양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은 이야기를 그쳤다.

師示衆云 纔有是非紛然失心 還有答話分也無 後有僧學似洛浦 洛浦扣齒 又學似雲居 雲居云 何必 僧學似師 師云 南方大人喪身失命 僧云 請和尚學 師纔舉 僧便指傍僧云 箇箇僧喫喫飯了 作什麼語話 師休去

거론은 “조금이라도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분별심이 있으면 마음을 잃고 만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

여 할 말이 있는가?” 라는 말을 대중에 거둬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낙포 스님이 이를 부딪쳤던 것은 그에 토를 달기 두렵다는 뜻이고, 운거 스님은 그런 낙포 스님을 부정한 것이다. 조주 스님은 또 두 사람을 다 죽이고도 한 학승의 대답에는 더 이상 말을 못했다. 선사라 해도 말을 그만 둘 때가 있다. 더 이상 나아가다가는 일을 망치고 말기 때문이다.

조주 스님이 금강경(金剛經)을 보고 있는데 마침 어떤 스님이 그것을 보고 물었다.
“모든 부처님 및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두 이 경(經)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합니다만 이 경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아문 일시 불제사위국...”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 아니옵나.”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나 스스로 경전을 고치거나 하는 따위의 일은 결코 할 수 없어.”

師因看金剛經次 僧便問 一切諸佛及諸佛阿耨菩提 皆從此經出 如何是此經 師云 金剛般若波羅蜜經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國 僧云不是 師云 我自理經也不得

선사가 금강경을 읽으면 꽃이 피어나지만 깨닫지 못한 자가 금강경을 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두 사람의 차

이점은 무엇인가?
조주 스님이 신참 학인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학승이 말했다. “남쪽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조주의 관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학승이 말했다. “관문을 건너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주 스님은 꾸짖었다. “이 소금 암매상 놈아!”
또 조주 스님은 말했다. “형제들이여, 조주의 관문은 통과하기가 힘들다.”
학승이 물었다. “조주의 관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돌다리가 그것이다.”

師問新到 從什麼處來 云南方來 師云 還知有趙州關麼 云須知有不涉關者 師叱云 者販私鹽漢 又云 兄弟趙州關也難過 云如何是趙州關 師云 石橋是

조사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남에게 선(禪)을 말하는 것은 소금을 도둑질해서 몰래 파는 자와 같다. 석가모니 불이나 경허 스님은 워낙 큰 인물이다. 이런 거물이 아니라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조실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 그러면 “이 소금 암매상 놈아” 하고 소리쳤을 때 ‘이 도둑놈아’ 하고 맞받아 칠 것이고, “돌다리”라고 말했다면 “똥아버렸다” 고 말하게 될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45



몸이 침묵하고 입이 침묵하며 뜻이 침묵하는 사람을 죄악이 없는 사람이라 말한다

(이티부터카(如是語經))

절창(絶唱)이다. 시나 노래에서 ‘기가 막히는’ 명언(名言)이나 명구(名句)를 만날 때, 우리는 절창이라 말한다. 절구(絶句)라고도 한다. 시인들은 이 절창을 시 속에 집어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잘 안 된다. 사실 시집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어봐도, 어떤 때는 하나의 절창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나는 오늘 절창을 만났다. 부처님이 시인 중의 시인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침묵, 이라는 말은 다변(多辯)의 반대말일 터이다. 아니 다변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말이 있는 상태의 반대말이 침묵이 아닌가. 그러므로 ‘침묵’은 당연히 말의 침묵이고, 입의 침묵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입의 침묵만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신다. 뜻의 침묵과 몸의 침묵까지 더 나아가셨다. 뜻의 침묵이라? 아, 거기까지는 우리가 애써 이해한다면 이해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뜻이라는 것도 결국은 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말이다.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결은 말로 짜이기 때문이다. 유식(唯識)불교에서 무의식이라 할 수 있는, 제8아뢰야식은 말(名言)이라는 씨앗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던가. 또 라강같은 서양의 정신분석학자 역시 “무의식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음을 생각할 때, 뜻의 침묵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몸의 침묵은 무엇이란 말인가? 몸이 침묵하다. 내가 오늘의 이 말씀을 절창이라 느끼면서, 무릎을 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몸은 말이 없는데, 소리로 없는데, 몸이 침묵하더니?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징표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부처님은 몸이 살아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 부처님께서는 몸만을 따로 떼어놓고 몸이 아닌 것을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었구나. 몸을 몸 아닌 것과 대립시켜놓은 채, 몸 아닌 것을 살아있음의 본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터에 부처님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으셨다.

시는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살리는 행위다. 살아있지 않은 것에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버리는 것이다. 몸, 이라는 생명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부처님은 지

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다. 그것이 침묵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연히 “몸이 말하다”, 혹은 “몸이 다변이다”라고 할 수 있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 몸이 말을 하고, 침묵도 한다. 몸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다. 입이나 뜻만이 생명체가 아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은 시인이시다. 시인 중 시인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그렇다면 몸이 침묵하고 입이 침묵하고 뜻이 침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시어경) 자체 내에 해답이 있다. 이 말씀이 설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먼저 세가지 나쁜 일, 세가지 착한 일, 세가지 청정함을 말씀하신다. 그런 뒤에 세가지 침묵을 그 결론으로서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나쁜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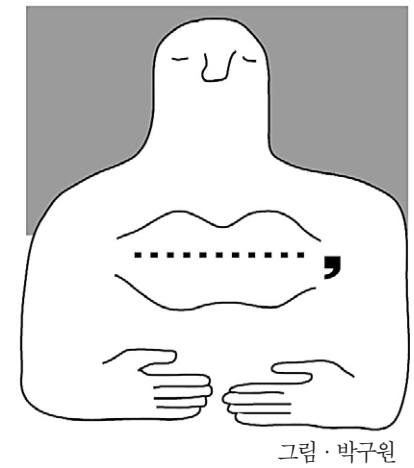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을 지을 수 있다.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다. 몸과 입, 그리고 뜻이 청정해야 한다. 이렇게 전체를 닦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입, 그리고 뜻의 세가지 업을 청정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설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내도 나쁘지는 않았으리라. 하지만 마지막 결론, 즉 청정이라는 말씀을 한번 더 강조하시면서 맺음을 하셨다. 더욱 시적으로 강조하셨다. 그를 위하여 침묵이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 그럼으로써 “몸이 침묵하고”라는 절창을 가능하게 했다. “몸이 청정하고”와 얼마나 다른가. “몸이 청정하고”는 쉽게 잊을 수 있지만, “몸이 침묵하고”라는 구절은 쉽게 못 잊는다. 적어도 내 경우는 그렇다. 그것이 절창의 힘이다. 시의 힘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40>

번뇌-④ 근본번뇌 탐 · 진 · 치

삼독의 근원은 아상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번뇌를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거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느끼고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씩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번뇌의 절반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 번뇌의 원인을 통찰하고 체득할 수 있다면 번뇌의 완전한 소멸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번뇌의 완전한 소멸이야말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 열반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열반을 증득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에서는 번뇌에 관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번뇌에 빠져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그 첫 번째가 근본번뇌이다. 근본번뇌는 말 그대로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다른 번뇌들은 이 근본번뇌로부터 파생되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번뇌[隨煩惱]이다. 동일한 의미로 본번뇌(本煩惱)라고도 하고 마음을 어지럽고 산란하게 만들어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의미로 혹(惑)자를 붙여 근본혹(根本惑) 또는 본혹(本惑)이라고도 한다.

근본번뇌에는 탐(貪) · 진(瞋) · 치(癡) · 만(慢) · 의(疑) · 악견(惡見)의 여섯 가지가 있다. 이 중에 먼저 탐 · 진 · 치 삼독(三毒)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탐은 탐욕을 말한다. 탐욕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대

상에 대한 집착이다.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에 대해 사랑하고 집착하므로 애(愛)라고도 한다. 이 탐욕에는 욕망의 세계인 욕계의 탐욕[欲貪, 欲愛]과 감각의 욕망은 없어졌지만 아직 물질적인 것은 남아 있는 세계인 색계의 탐욕[色貪, 色愛], 그리고 물질적인 것조차 없어진 순수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의 탐욕[無色貪, 無色愛]이 있다. 탐욕은 이와 같이 무색계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끈질기고 끊기 어려운 번뇌중 하나이다.

진은 진에(瞋恚), 애(惠), 노(怒)라고도 하며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반감, 혐오, 분노 등을 말한다. 진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忿), 한(恨), 해(害)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우선 분은 매우 격하게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이다. 한은 진에가 마음에 결합되어 영원한 원망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해는 진이 행동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을 가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좋아하고 간절히 원하던 일을 저지당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우선 상대방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당연히 미워하는 것에 대한 분노[忿]가 생길 것이다. 그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남아 있을 경우 반복되는 분노에 의해 원망의 마음[恨]이 생길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진에란 자신의

욕망과 집착이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증오심이라고 할 수 있다.

치는 이러한 탐욕과 분노로 인해 사제와 연기의 도리에 대한 통찰을 방해 받아 일어나는 어리석음[愚癡]을 말한다. 이 어리석음은 심이연기의 무명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탐, 진, 치 삼독의 치는 탐욕과 분노를 그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명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 이를 테면 무명에는 상응무명(相應無明)과 불공무명(不共無明)이 있다. 이 중에 상응무명은 탐욕, 분노, 교만 등의 다른 번뇌와 상응해서 일어나고 불공무명은 사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독립적으로 다른 번뇌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치는 탐욕과 분노로 인해 사리분별을 못하고 마음이 산란하여 사제나 연기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상응무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으로 사제나 연기의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탐욕과 분노의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번뇌는 모두 근원적으로 ‘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내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견해[邪見]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상(我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통찰한다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번뇌도 자연히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무아(無我)를 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日 龍곡대 불교학사 · 前 本지기자

대강백 무비 스님과 대심 거사 조현춘 교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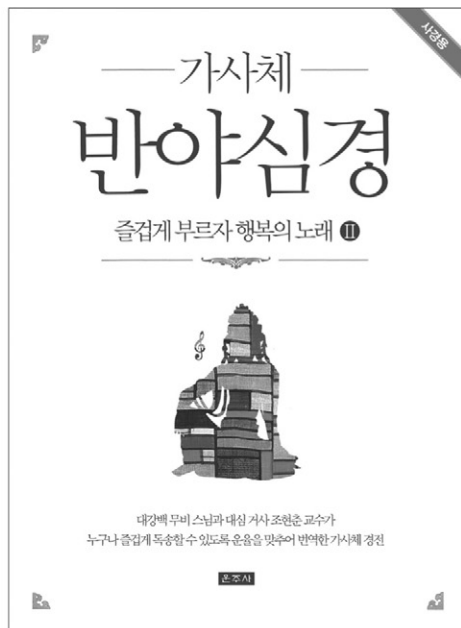
누구나 즐겁게 독송할 수 있도록

운율을 맞추어 번역한 가사체 경전

선물용
법공양용으로
절찬리 판매중



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사륙배판/96쪽/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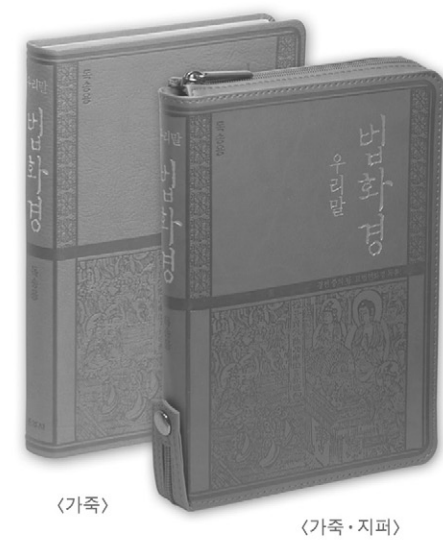


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사륙배판/88쪽/5,000원



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사륙배판/100쪽/5,000원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독송!



(가죽) (가죽 · 지피)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해조 역/국판양장/금장 630쪽/가죽: 20,000원/
가죽 · 지피: 25,000원

